

선지서 해석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Ankur Lee-Vakil (Son-in-law)

제 5 강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 Millennium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선지서 해석

제 5 강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왕정 초기(Early Monarchy)	1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2
1. 통일 왕국(United Kingdom)	2
2. 분열 왕국(Divided Kingdom)	2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3
1. 언약의 이상들(Covenant Ideals)	3
2. 분열 왕국(Divided Kingdom)	3
III. 앗수르의 심판 시기(Assyrian Judgment).....	4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4
1. 아람-이스라엘 동맹(Syrian-Israelite Coalition)	5
2. 사마리아의 함락(Fall of Samaria)	5
3. 산헤립의 침공(Sennacherib Invasion)	6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6
1. 요나(Jonah)	6
2. 호세아(Hosea)	7
3. 아모스(Amos)	7
4. 미가(Micah)	8
5. 나훔(Nahum)	9
6. 이사야(Isaiah)	9
IV. 바벨론의 심판 시기(Babylonian Judgment)	10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11
1. 일차 침입(First Incursion)	11
2. 이차 침입(Second Incursion)	11
3. 삼차 침입(Third Incursion)	12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12

1. 예레미야(Jeremiah)	12
2. 스바냐(Zephaniah)	13
3. 요엘(Joel)	13
4. 오바다(Obadiah)	15
5. 하박국(Habakkuk)	15
6. 에스겔(Ezekiel)	16
7. 다니엘(Daniel)	16
V. 회복 시기(Restoration Period)	17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18
1.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Israelites Return to the Land)	18
2. 성전의 재건(Rebuilding of the Temple)	19
3. 만연한 배교(Widespread Apostasy)	20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21
1. 학개(Haggai)	21
2. 스가랴(Zechariah)	21
3. 말라기(Malachi)	22
VI. 결론(Conclusion)	23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5 강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Historical Analysis of Prophecy)

I. 서론(INTRODUCTION)

최근에 한 친구가 그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에 결혼한 친구였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아내가 그의 서랍 하나를 청소하다가 옛날 여자 친구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녀는 그 편지가 최근에 쓰여진 줄 알고 매우 화를 냈다. 그러나 내 친구는 그 편지가 봉투와 봉투에 적힌 날짜를 통해 수년 전에 쓰여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내 친구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리차드, 자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만일 그 편지가 언제 쓰였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선지자들이 언제 말했고 언제 책을 썼는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충실하게 연구하려면, 우리는 선지자들이 사역한 시대와 연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이다. 우리는 구약 역사가 어떻게 구약의 선지서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지 조사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 분석은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네 개의 주요 시기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우리가 살필 첫 번째 시기는 왕정 초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이고, 세 번째 시기는 바벨론의 심판 시기이고,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회복 시기이다. 그럼 먼저 왕정 초기를 살펴보자.

II. 왕정 초기(EARLY MONARCHY)

우리는 이전 강의를 통해 왕정이 도입될 때 예언 사역이 두드러지게 일어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선지서에 대한 우리의 역사 분석을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들이 있었던 시기, 곧 왕정 초기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전 2000 년경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사울의 등극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없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이 주전 1000 년경에 세워졌고 그의 왕국은 여러 세대 동안 고스란히 지속되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기를 탐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은 무엇인가? 이 사건들은 선지자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왕정 초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주요 사건을 고찰해보자. 먼저 우리는 통일 왕국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1. 통일 왕국(United Kingdom)

주전 1000 년경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했다. 그는 모든 지파를 통합했고, 왕국을 위한 비교적 안정된 영토를 확보했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지파들을 통합된 상태로 다스렸다.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완벽한 왕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이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복을 받은 이상적인 시대로 보고 있다.

2. 분열 왕국(Divided Kingdom)

이 왕정 초기의 상황이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주요 사건인 왕국의 분열도 기억해야 한다. 슬프게도,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북쪽 지파들이 이탈하여 주전 930년경 그들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 우리는 열왕기상 12 장과 역대하 11 장을 통해 이 사건을 배운다.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이탈하여 그들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다. 여로보암 1 세는 북쪽 지파들의 왕이 되었고, 세겜에 수도를 세웠고, 단과 벰엘에 제단을 마련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남 왕국에 대한 그의 반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멀리 나갔다. 그는 벰엘과 단에 있는 그의 제단에 우상들을 세웠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 왕국은 심히 타락했다. 북 왕국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섰고 그들의

언약적 책임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 이 시기 동안 남 왕국 유다도 기복이 있었지만, 대체로 그들은 북 왕국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상태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왕정 초기에 있었던 두 가지 주요 사건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먼저 백성이 엄청난 복을 받은 시기인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통일 왕국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왕국의 분열을 살펴보았다.

왕정 초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건들이 선지자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구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는 그들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는 16 명의 선지자들이 나온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정 초기가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밝혀 주지만, 구약의 선지서들 중 이 시기에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왕정 초기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이 배경을 살필 수 있다.

1. 언약의 이상들(Covenant Ideals)

한편으로, 기록 선지자들은 통일 왕국 시대를 왕정의 중요한 언약 이상들을 세우는 시대로 회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고 솔로몬에게 확인해 주신 언약에 기초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유다와 재통일될 날을 열망했다. 그들은 다윗의 보좌가 다시 견고해지고 영토가 다시 한 번 확장될 날을 고대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 왕국은 구약의 기록 선지자들을 위한 배경을 제공한다.

2. 분열 왕국(Divided Kingdom)

다른 한편으로, 왕국의 분열 또한 기록 선지자들이 서로 다른 두 나라를 위해 사역했다는 사실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이 두 왕국은 비교적 독립된 역사를 갖고 있었다. 어떤 선지자들은 북 왕국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언약의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에게 큰 치유와 복의 날에 대하여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초점은 북쪽 지파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맞추어져 있었다. 다른 선지자들은 남 왕국 유다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복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추었다.

왕정 초기에는 어떤 기록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시기가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에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된다. 왕정 초기는 언약의 이상들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북 왕국과 남 왕국으로 분리된 실상도 확립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경을 제공하는 왕정 초기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의 두 번째 주요 시기인 앗수르의 심판 시기로 나아갈 것이다.

III. 앗수르의 심판 시기(ASSYRIAN JUDGMENT)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언약 백성은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이 언약을 노골적으로 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한 심판을 내리시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전쟁을 보내신 첫 번째 시기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였다. 전쟁에서의 패배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특히 주전 734-701 년 사이에 앗수르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 주전 8-7 세기 동안 앗수르 제국은 강성해졌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 그 세력의 전성기에 앗수르 제국은 오늘의 터기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까지 뻗어 있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거대하고 공격적인 제국을 상대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었다. 앗수르의 심판 시기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두 가지 문제를 살필 것이다. 이 시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은 무엇이었는가? 이 사건들은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앗수르 제국이 강성하던 시기에 구약의 선지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연구에 중요한 적어도 세 가지 주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째는 아람-이스라엘 동맹이었고, 둘째는 사마리아의 함락이었고, 셋째는 산헤립의 침공이었다.

1. 아람-이스라엘 동맹(Syrian-Israelite Coalition)

아람-이스라엘 동맹은 그 당시 앗수르의 지배 아래 있던 세 작은 나라, 곧 아람과 북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분쟁과 관계가 있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 중 매우 흥미로운 한 단락은 이사야 7 장이다. 주전 734 년경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 신물이 나서 앗수르인들이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내분을 겪고 있는 틈을 타서 앗수르인들에게 저항할 동맹을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자신들의 동맹을 결성하는 것 외에 유다를 강제로 그들의 대열에 합류시키려 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그 동맹에 합세하기를 거부하고 앗수르에 도움을 청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중대한 결과들 중 하나만은 알고 있어야 한다. 북 왕국과 남 왕국은 모두 앗수르와 갈등의 길에 있었다.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앗수르 왕들이 와서 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켰다. 유다는 잠시 앗수르 편에 있었고, 그래서 앗수르 제국에 엄청난 조공과 엄청난 조세를 바쳐야만 했다. 그러나 결국, 유다조차도 앗수르에 반역했고, 이로 인해 남 유다에도 심판이 내려질 판이었다.

2. 사마리아의 함락(Fall of Samaria)

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일어난 두 번째 주요 사건은 사마리아의 함락이었다.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아람-이스라엘 동맹이란 반역 때문에 앗수르의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열왕기하 17 장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읽을 수 있다. 앗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북 이스라엘로 진격하여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고, 앗수르인들은 많은 북 이스라엘인들을 국외로 추방시켰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날이 되었지만, 대규모의 국외 추방이란 언약 심판의 절정은 실제로 앗수르인들의 손에 의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3. 산헤립의 침공(Sennacherib Invasion)

앗수르의 심판 시기의 세 번째 주요 사건은 산헤립의 유다 침공시에 일어났다. 유다는 북 왕국으로부터 벗어나는 보호를 얻으려고 앗수르에 굴복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앗수르의 진노를 피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유다조차도 결국 앗수르에 반역했고 이 대제국의 분노를 샀다. 유다에 대한 공격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악의 공격은 주전 701 년경의 산헤립의 침공이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열왕기하 18 장과 19 장에서 읽을 수 있다. 앗수르인들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왔다. 사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 그 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전심으로 도움을 구하고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유다는 앗수르의 봉신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의 침공으로부터 전멸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일어난 세 가지 주요 사건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로, 주전 734 년의 아람-이스라엘 동맹이 있었다. 둘째로, 주전 722 년의 사마리아의 함락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주전 701 년의 산헤립의 침공이 있었다.

지금까지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일어났던 세 가지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 사건들이 선지자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앗수르 제국을 통한 심판은 선지자들의 사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구약의 선지서 16 권 중 6 권은 이 시기 동안 여호와와 사절들로서 활동한 요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이사야의 사역을 전하고 있다. 이 선지자들은 모두 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사역했다. 이 선지자들이 앗수르 제국을 통한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말했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자.

1. 요나(Jonah)

우리가 첫 번째로 언급할 선지자는 요나이다. 왕하 14:25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전 793-753 년경 북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 세의 통치 시기에 요나를 부르시어 예언 사역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어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사역한 장소는 선지자들 가운데 좀 독특했다. 그는 이 앗수르 수도에 가서 여호와와 말씀을 전했다. 욥 3:4 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다.

(욥 3:4)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에게는 아주 유감스럽게도, 니느웨 성 주민들은 여호와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내리시기로 경고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의 사역은 앗수르와 같은 악한 제국에까지 확장된 하나님의 자비를 잘 드러내고 있다.

2. 호세아(Hosea)

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사역했던 두 번째 선지자는 호세아였다. 호 1:1 에 의하면 호세아는 유다의 왕들인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다. 웃시야의 통치의 마지막 해는 주전 740 년경이고, 히스기야의 통치의 첫 해는 주전 716 년경이다. 이 범위는 선지자 호세아의 사역을 가늠해 볼 긴 기간을 세워준다. 그는 주전 750 년 경부터 적어도 주전 722 년 사마리아의 함락 때까지 주로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 아마도 호세아는 사마리아가 함락되던 해에 유다로 이주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가 아람-이스라엘의 동맹 이전의 번영기에 예언 사역을 했고 사마리아의 함락 때까지 줄곧 예언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호세아의 예언의 초점은 그가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음을 알려준다. 그의 예언은 대부분 북 왕국의 부패와 악에 대한 경고로 이루어져 있다.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곧 북 왕국이 죄로 인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앗수르인들을 데려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예언은 사마리아의 함락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호세아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포로기 이후에라도 언젠가는 회복이란 언약의 복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3. 아모스(Amos)

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초점을 맞춘 세 번째 선지자는 아모스였다. 암 1:1 에 의하면 아모스는 웃시야가 유다의 왕이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사역했다. 이 구절은 아모스의 사역 기간의 범위가 주전

760 년에서 주전 750 년경이었음을 알려준다. 아모스는 주전 734 년의 아람-이스라엘 동맹 이전에 사역했다. 그는 여로보암 2 세의 치하에서 북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던 때에 사역했다. 호세아처럼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 그가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 경고한 주된 메시지는 이것이다. 곧 앗수르 제국을 통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사마리아가 함락될 것이고 국외 추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암 5:27 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 5:27 개역개정)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는 그의 책의 마지막 장에서 국외 추방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되풀이한다. 회복이 있을 것이었다. 이렇게 모세 자신이 약속했던 언약의 복 곧 국외 추방 이후의 회복은 아모스에 의해서도 재확인되었다.

4. 미가(Micah)

앗수르에 의한 심판을 다룬 네 번째 선지자는 미가였다. 미 1:1 에 의하면 미가는 유다의 왕들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 사역을 했다. 미가는 적어도 요담의 통치의 마지막 해인 주전 735 년 경부터 산헤립의 침공이 있던 주전 701 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했다. 호세아와 아모스와는 달리, 미가는 유다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부근에서, 사역했다. 간단히 말하면, 미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인들의 손을 통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사마리아가 멸망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없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도 곧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헤립의 침공 동안 미가는 예루살렘이 결코 적에게 멸망할 리 만무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반박했다. 그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럴지라도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소망을 갖도록 했다. 미가가 전한 그 소망은 설령 국외 추방이 일어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적들에게 보복하시어 앗수르의 압제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것이고, 한 위대한 왕을 일으키시어 백성을 통일시키고 본토에서 언약의 복들을 회복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5. 나훔(Nahum)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사역했던 다섯 번째 선지자는 나훔이었다. 나훔의 사역 시기는 그의 책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책에 있는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다. 나훔의 사역은 주전 663 년부터 주전 612 년 사이에 있었다. 그의 책의 두 구절은 가능한 연대의 범위를 세워준다. 나 3:8 에서 우리는 애굽의 도시 테베(개역개정: 노아몬)가 앗수르인들에 의해 이미 정복당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건은 주전 663 년에 일어났다. 그리고 선지자 나훔은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도 예언하는데, 나 3:7 에서 이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말한다. 니느웨의 멸망은 주전 612 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역이 이 큰 사건 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나 1:15 에서 나훔이 “유다야,”하고 부르는 것을 보며 그가 유다에서 실제로 사역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나훔은 유다가 아니라 앗수르에 그의 주의를 집중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앗수르의 손에 의해 심히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나훔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곧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멸망시키시리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심으로써 앗수르를 처벌하실 것이라고 장담했다. 나 3:5-7 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나 3:5-7)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언하신다. . . “내가 너를 경멸하며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겠다. 너를 보는 모든 사람이 너를 피하여 달아나며 ‘니느웨가 망해 폐허가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6. 이사야(Isaiah)

앗수르의 심판 시기에 초점을 맞춘 여섯 번째 선지자는 이사야였다. 사 1:1 에 의하면 이사야는 유다의 왕들인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사역했다. 이 왕들의 기입은 우리에게 이사야가 주전 740 년 경부터 적어도 산헤립의 침공이 있던 주전 701 년보다 조금 더 지난 때까지

사역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사야가 아람-이스라엘의 동맹, 사마리아의 함락, 산헤립의 침공 때까지 줄곧 사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가 유다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음을 알려준다. 이사야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유다를 다루었다. 그는 아람-이스라엘의 동맹 때에 여호와께 대한 충성과 신뢰를 촉구했다. 산헤립의 침공 때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인도했다. 이러한 그의 사역에는 한 가지 주된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앗수르의 심판에 직면하여 유다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또 다른 경고를 받았다. 그것은 국외 추방이 유다에 닥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이사야는 유다의 회복이 포로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우리는 앗수르에 의한 심판의 시기에 선지자들의 사역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선지자들은 이 시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불행과 곤경의 때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심판의 말뿐만 아니라 더 밝은 날이 눈 앞에 다가왔다는 격려의 말도 전했다.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 시기로 나아갈 것이다.

IV. 바벨론의 심판 시기(BABYLONIAN JUDGMENT)

지금까지 우리는 왕정 초기가 구약의 모든 기록 선지자를 위한 배경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또한 주전 734 년부터 701 년까지 앗수르를 통한 심판이 요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그리고 이사야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 중 세 번째 주요 시기인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이르렀다. 이 심판의 시기는 주전 605 년부터 주전 539 년까지 계속되었다.

여러 면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앗수르의 심판 시기와 바벨론의 심판 시기 사이의 중심점을 이룬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가 산헤립의 침공 때 히스기야를 위해 봉사한 것을 보았다. 이 침공이 끝난 후에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벨론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 이사야 39 장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한 일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 39:5-7 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39:5-7 개역개정)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다시 한 번 우리는 우리의 논의를 두 개의 관심사로 나눌 것이다. 첫째로,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은 무엇이었는가? 둘째로, 이 시기에 선지자들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럼 먼저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자.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사건, 곧 주전 605 년의 바벨론의 일차 침입, 주전 597 년의 이차 침입, 주전 586 년의 삼차 침입을 알아야 한다.

1. 일차 침입(First Incursion)

먼저 주전 605 년에 바벨론의 일차 침입이 있었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여호야김 왕은 그의 바벨론 종주인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갔다. 이 때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다.

2. 이차 침입(Second Incursion)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두 번째 주요 사건은 주전 597 년에 일어났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지속적인 반역에 대하여 이차 침입과 국외 추방으로 대응했다. 이 때에 그는 유다의 많은 부분을 파괴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유배시켰다. 이 국외 추방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사로잡혀 갔다. 이 이차 침입은 여러 면에서 유다 왕국을 손상시켰지만, 백성은 여전히 그들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3. 삼차 침입(Third Incursion)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세 번째 주요 사건은 주전 586 년에 일어났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지속적인 반역에 신물이 났고 세 번째 마지막 침입과 국외 추방을 단행했다. 이번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다. 유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배지로 끌려갔고, 땅은 황폐한 상태로 남게 되었고, 유다의 오랜 망명 생활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주요 사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멸망의 시기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의 자손은 국외로 추방되어 유배 생활을 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끔찍한 시기였다.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시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 7 명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사절로서 사역했다. 그들은 예레미야, 스바냐, 요엘, 오바댜,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이다.

1. 예레미야(Jeremiah)

바벨론에 의한 심판의 시기의 첫 번째 선지자는 예레미야였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세 차례의 침입과 국외 추방이 일어나는 동안 줄곧 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섬겼다. 렘 1:2-3 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사역했다.

(렘 1:2-3) . . .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 . .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 . . 시드기야의 십일년 오월, 예루살렘 주민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 . .

이 두 절에 근거하여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인들이 앗수르인들을 물리치기 전인 주전 626 년경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적어도 바벨론의 마지막(삼차) 침입과 국외 추방이 일어난 주전 586 년 직후까지 여호와의 사절로서 계속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벨론인들이 침입하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입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참된 회개를 촉구했다. 바벨론 공격의 물결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멸이 확실함을 깨달았다. 예레미야는 백성으로 회개하고 수년간의 고난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정말 바벨론 유수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또한 이스라엘이 미래에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예를 들면, 그의 책 30-31 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새 언약 아래 안전하게 세우실 것임을 상기시켰다.

2. 스바냐(Zephaniah)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두 번째 선지자는 스바냐였다. 습 1:1 은 스바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언제 사역했는지 분명하게 말해 준다. 그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통치 시대에 사역했다. 요시야는 주년 640 년 경부터 주전 609 년까지 유다를 통치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스바냐의 사역이 예레미야의 초기 사역과 동시대임을 알 수 있다. 습 2:13-15 에서 스바냐는 니스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앗수르와 다른 나라들에게 이를 것을 예언했다. 그는 유다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바벨론의 지배를 예상했다. 그럴지라도 스바냐는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어 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습 3:20 에서 스바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 3:20 개역개정)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 요엘(Joel)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등장한 세 번째 선지자는 요엘이다. 우리는 요엘의 사역 연대에 대하여 어느 한 주장을 고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요엘서가 우리에게 그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엘의 사역을 좀 더 이른 연대로 보는 해석자들도 있고, 좀 더

늦은 연대로 보는 해석자들도 있다.¹ 그러나 율 1:13 과 많은 다른 언급들로부터 우리는 요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전과 제사장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요엘은 또한 율 2:1 에서 시온의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요엘은 아마도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동안 언젠가 사역했을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직설적이었다. 유다 땅이 외국 군대에 의해 강탈당하리라는 것이었다. 요엘 2 장에서 요엘은 회개를 촉구하며 진지한 회개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미연에 방지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도, 요엘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의 독자들에게 포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유례없는 언약의 복의 때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율 3:20-21 에서 요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¹ [역자 주] Dillard 와 Longman(*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367)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요엘 저작 연대를 주전 9 세기에서 주전 2 세기까지 학자들의 이름과 함께 열거한 후 6 세기 말에서 5 세기 중반으로 본 알스트림, 마이어스, 알렌의 입장이 내증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Hill 과 Walton(*A Survey of the Old Testament*, 474)은 요엘이 8 세기에 이르러야 시작되는 고전적인 예언(classical prophecy)의 예라면 아모스보다 늦은 시기의 저작이 분명하며 포로 이후를 지지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요엘의 저작 시기를 후포로기로 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에돔의 멸망 예언(3:19)과 제사장직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도 이른 후포로기, 즉 주전 6 세기 후반이나 5 세기 초반을 지지한다고 결론지었다. Hubbard(*Joel & Amos TOTC*, 25-27)는 (1)요엘의 여호와의 날이 아모스뿐만 아니라 스바냐와도 유사성을 보이고, (2)요엘의 성전 예배에 대한 묘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있는 성전 예배와 흡사하고, (3)율 3:1-8 의 묘사가 바벨론 유수 과정에서 적국이 보여준 악행을 가장 잘 반영하고, (4)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cf. 호 5:1) 거민들과 장로들만이 언급되고(율 1:2, 14; 2:15-16) 성전 예식이 언급된 것이 바벨론 유수와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에 힘입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주전 515 년)을 전제로 한 것이며, (5)요엘(3:19)이 에돔의 멸망을 미래적인 것으로 묘사한 반면 말라기(1:2-5)가 에돔의 멸망을 과거로 묘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6)말라기에 묘사된 성전 예배의 부패 그리고 말라기의 예언적 스타일이 어조와 내용에 있어서 요엘과 다른 점에 비추어 요엘이 말라기(주전 450 년경)보다 몇 십 년 앞선 것으로 보고 요엘의 저작연대를 주전 500 년 경으로 보면 무난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을 3:20-21 개역개정)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4. 오바댜(Obadiah)

바벨론의 심판 시기의 네 번째 선지자는 오바댜였다. 그의 책도 구체적으로 연대를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오바댜서는 에돔이 유다 사람들의 끔찍하게 고통 당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십중 팔구 오바댜는 주전 597 년에서 주전 586 년 사이에 바벨론이 유다에게 가한 침략과 국외 추방의 물결 속에서 유대인에게 닥친 고통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오바댜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들의 잔인한 행위들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에돔은 파멸될 것이다. 사실상 그는 언젠가 유다의 포로민들이 돌아와 에돔을 차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바댜는 그의 책 15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을 15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는 유다의 포로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확대한 것 때문에 열국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5. 하박국(Habakkuk)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사역했던 다섯 번째 선지자는 하박국이였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박국이 언제 사역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의 책의 내용은 우리에게 약간의 길잡이를 준다. 하박국서의 제 1 장에서 하박국은 유다의 불경건한 지도자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합 1:6 에 나온다. 거기서 주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합 1:6 개역개정)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구절에 의하면 하박국은 주전 605 년의 바벨론의 일차 침입과 국외 추방과 가까운 어느 시기에 사역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박국은 먼저 유다 백성의 악행을 한탄했고, 이어서 바벨론 사람들의 압제를 한탄했다. 그러나 그의 책의 끝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호와에 대한 그의 신뢰를 확인했다. 합 3:17-18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잘 알려진 신앙의 말을 읽는다.

(합 3:17-18 개역개정)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6. 에스겔(Ezekiel)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섬겼던 여섯 번째 선지자는 에스겔이었다. 겔 1:2 에 의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 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민들 가운데서 사역했고, 에스겔서의 나머지 부분이 밝혀주는 대로 주전 586 년 예루살렘의 대멸망 때까지도 사역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주전 597 년경부터 주전 586 년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 사역한 것이다. 에스겔은 초기 사역의 대부분을 바벨론인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할 것임을 선포하는데 보냈다. 이 외에도 에스겔서의 많은 부분은 포로된 백성이 어떻게 본토로 돌아갈 것인지와 돌아가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스겔은 성읍과 성전이 어떻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할 것인지를 묘사한 후에 겔 48:35 에서 그의 책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겔 48:35 개역개정)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 하리라

7. 다니엘(Daniel)

바벨론의 심판 시기에 사역했던 일곱 번째 선지자는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주전 605 년에 바벨론에 의한 일차 추방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의 책에 언급된 사건들은 다니엘의 사역이 적어도 주전 605 년에서 539 년까지 계속되었음을 밝혀준다. 다니엘은 꿈들을 해석했고, 그 자신의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유다의 포로 생활이 장기간 계속될 것을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단 9:13 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 9: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님의 진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 생활이 네 나라를 거칠 때까지, 곧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까지, 연장될 것임을 깨달았다. 다니엘은 포로민들 가운데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였고, 계속적인 반역은 본토와의 분리 기간만 늘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악의 패배를 경험한 때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땅으로부터 국외로 추방되었고, 다윗의 자손은 보좌에서 추방되었고, 성읍 예루살렘은 멸망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파멸되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 중 최악의 일이었다. 이 시기 동안 선지자들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도 전했다.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에 대한 이번 강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주된 시기에 걸쳐 주요 사건들과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의 마지막인 회복 시기를 다룰 것이다.

V. 회복 시기(RESTORATION PERIOD)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정 초기는 기록 선지자들을 위한 배경을 제공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앗수르의 심판 시기 동안 사역을 했고, 더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심판 시기 동안 사역을 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역한 선지자들을 탐구할 것이다. 우리는 주전 539 년에서 주전 400 년 경까지 계속되는 이 회복 시기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를 탐구할 때 이제까지 했던 방식을 따라 먼저 이 시기의 주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으로 선지자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럼 먼저 회복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자.

A. 주요 사건들(MAJOR EVENTS)

우리가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본토로 귀환한 사건이다.

1.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Israelites Return to the Land)

주전 539 년과 538 년에 하나님은 유배 중인 자기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사야의 예언들의 성취로서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격려했다. 포로 생활로부터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는 이 첫 번째 회복은 (많은 사람이 다윗 보좌의 정통 계승자인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하는) 세스바살의 영도 아래 일어났다.² 유배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은 수에 있어서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다.

² [역자 주]

1.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모두 “총독”으로 호칭되고(세스바살, 스 5:14; 스룹바벨, 학 1:1) 말은 직책과 임무가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세스바살, 스 1:8, 11; 5:14, 16; 스룹바벨, 스 2:2; 3:2, 8; 5:2)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인물로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동일인물로 볼 수 없다.

1) 이스라엘인 가운데 솔로몬/여디디아, 아사랴/웃시아처럼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요셉/사브낫바네야(창 41:45), 다니엘/벨드사살, 하나냐/사드락, 미사엘/메삭, 아사랴/아벳느고(단 1:7)처럼 히브리어식 이름과 다른 외국어식 이름을 갖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세스바살(“may šaššu[=šamaš sun-god] protect the father!”)이나 스룹바벨(“offspring of Babylon” 바벨론의 후예)이 모두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식 이름만 두 개 갖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둘을 동일시할 수 없다.

2) 다리오 2 년 즉 주전 520 년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스룹바벨(스 5:2)이 있었다. 이 재건 공사를 그치게 하려고 강 서편 총독 닷드네가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세스바살은 닷드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이 성전

2. 성전의 재건(Rebuilding of the Temple)

이런 사실은 회복 시기의 두 번째 주요 사건, 곧 주전 520 년에서 515 년 사이에 있었던 성전의 재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일차로 본토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소홀히 했다. 그들은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곧바로 그들 자신의 필요한 것에 사로잡혀 재건을 중단했다.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선지자

재건 공사에 없었던 것(스 5:14-16)처럼 묘사된다. 따라서 고레스 통치 기간(주전 538 년)에 일한 세스바살과 다리왕 통치 기간(주전 520 년)에 일한 스룹바벨을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다.

- 3)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처럼 다윗 왕가의 후손이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역대상 3 장의 다윗 왕의 족보가 포로기와 회복기 후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세스바살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세스바살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어원적으로 여고냐의 아들인 세낫살(대상 3:18)과 동일시될 수 없다. 세스바살에게 붙은 “유다의 목백”이라는 칭호가 에스겔서의 다윗과 같은 왕보다는 민수기의 지파들의 족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세스바살이 반드시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왕족인 스룹바벨과 왕족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세스바살을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다.
2. 세스바살은 고레스의 칙령(스 1:2-4)에 따라 고레스가 준 5400 의 금, 은 기명을 가지고 포로 귀환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스 1:8-11)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은 인물(스 5:14-16)이다. 이 설명 이외의 다른 설명이 성경에 없고, 나머지 하나님의 전 짓는 것은 스룹바벨과 그의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윌리엄슨(Williamson, *Ezra, Nehemiah*, 19)은 세스바살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측들을 언급하면서 어느 것도 결정적인 것은 못된다고 하였다. 세스바살은 주전 538 년과 주전 520 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었는지도 모른다(Bright, *A History of Israel*, 366). 세스바살은 이집트 공격을 위해 제국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캄비세스에 의해 면직되거나 다리오 1 세 등극 후에 일어났던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다리오에 의해 면직되었는지도 모른다(Sellin, *Geschichte des Israelitisch-Jüdischen Volks*, II 97). 세스바살의 임무는 고레스가 준 성전 금, 은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옮겨 놓는 일에 국한되었고 세스바살은 이 일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는지도 모른다(Rudolph, *Ezra und Nehemia*, 62). 윌리엄슨(45)은 캄비세스나 다리오가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다윗 왕의 후예를 원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의 후임으로 첫 포로 귀환민보다는 조금 늦게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외경 에스드라 1 서의 3:1-5:6 에 스룹바벨이 다리오 통치 초기에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암시하는 것에 대하여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학개와 스가라는 주전 520 년경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권면했다. 처음에는 대단한 낙관주의와 대단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 낙관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3. 만연한 배교(Widespread Apostasy)

회복 시기의 세 번째 주요 사건은 만연한 배교였다. 이 배교는 성전의 재건 이후,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 기간 동안 증대했다. 학자들은 이 시기의 정확한 연대에 대하여 논쟁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연대의 범위를 주전 450 년에서 400 년 경으로 정할 것이다.³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종교는 다른 민족들의 종교들과 혼합되었다. 회복 시기는 삐걱거리다가 멈추어섰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약간의 개혁들을 했고 잠시 효과가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혁들은 실패로 돌아갔다. 회복 시기는 커다란 배교의 시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회복 시기의 두 번째 관심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 사건들은 이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³ [역자 주] 후포로기 연대 (Howard, *An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281)

-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 539
- 고레스 칙령 반포 (스 1:1) 538
- 유대인 포로 귀환 (스 2) 538/537
- 제단 재건 (스 3:2) 538/537
- 성전 지대를 놓음 (스 3:8-10) 536
- 성전 재건 반대 (스 4:1-5, 24) 536-520
- 성전 재건 완성 (학 1:14-15; 스 6:15) 520-515
- 예루살렘 유대인에 대한 고소 (스 4:6) 485(?)
-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격상 484-465
- 예루살렘 유대인에 대한 고소 (스 4:7) 463-???
- 에스라 귀환 (스 7:1, 8) 458
- 느헤미야 1 차 귀환 (느 2:1) 445
- 느헤미야 2 차 귀환 (느 13:6-7) 433?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IES)

잘 알려진 세 명의 회복기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이었다 그럼 먼저 학개의 사역을 고찰해보자.

1. 학개(Haggai)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본토로 귀환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인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준다. 따라서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우리는 학개가 언제 사역했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학 1:1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의 초하루에 학개를 통하여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다. 학개서의 이 구절과 다른 구절들에서 우리는 주전 520 년에 4 개월 동안 학개의 모든 예언이 선포된 것을 알 수 있다.

학개의 기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학개는 허우적거리는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학개는 스룹바벨과 백성이 죄를 회개하면 큰 승리와 복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학 2:21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 2:21)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라고 말하라.

학개는 백성이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 그분의 성전을 재건할 경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제시했다.

2. 스가랴(Zechariah)

회복 시기의 두 번째 선지자는 스가랴였다. 우리는 스가랴서의 내용에서 스가랴가 학개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스 1:1 에 의하면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이년(곧 주전 520 년) 여덟째 달에 사역하기 시작했다. 스가랴서 9-14 장의 내용을 통해, 많은 해석자들은 성전 재건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진 이후에도 스가랴의 사역이 계속되었다고 믿는다. 스가랴서의 처음 여덟 장에 요약된 그의 초기 사역에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다. 그것은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면 큰 복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스가랴서 9-14 장에서 스가랴는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미래의 대단원적 개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했다. 선지자 스가라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자기 백성에게 승리와 공의를 가져오실 미래의 일련의 큰 사건들에 대한 환상들을 보았다. 슥 14:20 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슥 14:20)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질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솔이 제단 앞의 거룩한 주발과 똑같은 것이다.

3. 말라기(Malachi)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다. 그가 성전과 레위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아, 말라기 또한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한 것이 분명하다. 그의 메시지는 느헤미야의 개혁 기간 혹은 그 이후, 즉 주전 450 년에서 주전 400 년 사이의 어느 때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 성전 봉사가 아주 부패되었고 백성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멀리하였기 때문에, 말라기는 큰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말 3:5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말 3:5) 내가[=여호와께서]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말라기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이스라엘의 의인들을 위한 마지막 회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았다. 말 4:2 에서 말라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판명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

(말 4:2 개역개정)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는 심지어 배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끝나면 큰 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회복 시기의 선지자들은 큰 위기를 다루어야만 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계속했다. 그 결과로 선지자들은 회복의 큰 복들이 먼 미래에나 임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먼 미래가 언제 이르렀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였다.

VI.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을 탐구했다. 역사는 매우 복잡하지만, 네 개의 주요 시기로 나누어서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을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네 개의 주요 시기는 왕정 초기, 앗수르의 심판 시기, 바벨론의 심판 시기, 그리고 후포로기이다. 후포로기는 처음에 소망들로 충만했지만, 결국 그 소망들이 더 큰 심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먼 미래의 복에 대한 기대로 바뀐 때였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해석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의 말을 그들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은 항상 필수적이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직면한 역사적 상황과 연결시킬 때, 우리는 그들의 말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